

문재인
대통령
말글집
제5권

위기를 기회로

선도국가 대한민국



위기를 기회로

선도국가
대한민국

위기를 기회로

선도국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말글집

제5권

발간사

문재인정부 5년의 마지막 해는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1년이었습니다. 국민을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웠고 선도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제 문재인정부 마지막 대통령 말글집을 발간한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국민의 삶을 진심으로 걱정했던 대통령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다섯 번째 말글집은 문재인정부 5대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키워드로 묶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울고 웃었던 생생한 현장 사진도 함께 담았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직접적인 생각, 애국과 보훈에 대한 남다른 신념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고군분투와 포용적 복지국가의 성과, 국민안전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읽을 수 있습니다. K-방역을 소개한 국제회의 연설은 모두 우리 국민이 이뤄낸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 덕분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기에서 준비하는 미래, 격차를 줄이는 위기 극복,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실천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만들어낸 산물이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한민국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일입니다. 한국판 뉴딜과 선도국가라는 당당한 목표, 탄소중립과 수소경제를 통한 새로운 일상, 과학기술과 우주강국을 향한 꿈, 상생경제와 지역균형 뉴딜 모두 우리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앞을 향해 전진하는 대통령을 곁에서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은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

이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진입했습니다. 경제성장률 4% 달성, 1인당 국민소득 3만 5,000달러 시대를 열었고, P4G 정상회의 개최와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 활약했습니다. 모두 국민의 헌신으로 이룬 위대한 성과입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더더 아쉬웠지만,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어떤 정부에서라도 한반도 평화를 이룰 밑바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매일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지표를 공유하며 국민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애써온 대통령과 참모들의 아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아쉬움을 이 말글집에 담습니다.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향해 도전했던 문재인정부의 노력이 온전히 국민의 행복으로 돌아가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2022년 4월

대통령비서실장 유영민

키워드로 읽는 문재인정부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민주주의·인권

- 희망의 오월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열립니다 21
- 세계는 대한민국을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부릅니다 23
-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일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24
-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습니다 26
- 다른 사람의 인권이 보장될 때 나의 인권도 보장됩니다 28
- 적대와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30

정부혁신·권력기관 개혁

- 국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32
- 한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35
- 열린정부는 전진하는 민주주의의 동력입니다 37

- 경찰 스스로 더욱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39

따뜻한 보훈

- 영웅들의 용기와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40
- 애국은 이제 인류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42
-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승리와 희망의 역사입니다 44

2. 더불어 잘사는 경제

한국판 뉴딜

- 한국판 뉴딜의 진화가 시작됐습니다 49
- 한국판 뉴딜 2.0은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고 포용적 전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51
-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게 하겠습니다 53

탄소중립·그린 뉴딜

- 탄소중립은 기술과 산업 혁신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56
- 인간과 지구의 공존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용적 녹색회복의 길에 함께할 것입니다 57
- 에너지 차관 신설을 계기로 각 부처가 협업하여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59
-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새로운 무역질서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61
- 세계는 탄소중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63

수소경제

- 탄소 없는 수소산업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65
- 수소 시대는 지하자원이 아닌
기술과 혁신이 에너지의 주역이 되는 세상입니다 67
- 수소경제를 위한 글로벌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69
-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70

상생경제

- 상생과 협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72
- 모든 세대는 지구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74

경제활성화

-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려면 재정이 탄탄한
디딤판이 되어야 합니다 76
- 수출이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 수출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78
- 한국은 유망하고 지속가능하며 안정적인 투자처입니다 79
- 우리는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81
- 강한 경제 반등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84

포용적 회복

- 모두가 함께 이룬 경제회복인 만큼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85
- 다 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88
-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90
- 적극적 재정정책은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92
-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완성됩니다 93

-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96

좋은 일자리

- 구인과 구직 사이의 일자리 부조화를
빠르게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100
- 더 나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사람중심 회복이라 할 것입니다 102
- 코로나19 위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103
-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104
- 기업은 필요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은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105

혁신성장

-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희망의 중심에 섰습니다 107
- 도전하는 만큼 진보하고, 혁신하는 만큼 도약할 수 있습니다 108
-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량은 혁신에서 나옵니다 110
- 기업의 담대한 도전과 혁신에 과감한 지원으로
응답하겠습니다 111

선도형 경제

- 선도형 경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는 경제입니다 114
-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믿습니다 116
-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118

4차 산업혁명·디지털 뉴딜

-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120
- 배터리 기술 발전은 한국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122
-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포용의 힘을 더욱 키웠습니다 124
- 활용할수록 더욱 가치가 커지는 것이 데이터입니다 125
- 디지털 혁신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126

과학기술·우주강국

- 우리나라는 항공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128
- 누리호 시험비행,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됩니다 131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K-방역

-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135
- 백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힘있게 육성하고자 합니다 137
- 코로나19에 대응할 단 하나의 방법은 국제 연대와 협력입니다 139
- 어느 때보다 더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141
- 세계 5대 백신 강국, 바이오 선도국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42

휴먼 뉴딜

- 휴먼 뉴딜을 통해 고용과 사회안전망,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44
- 사람투자를 확대하는 휴먼 뉴딜을 통해
사람중심의 포용적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146

포용적 복지국가

- 건강보험이 코로나19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튼튼하게 해 주었습니다 148
- 우리는 함께 회복하고, 함께 도약할 것입니다 152
-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154
- 모두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하고
누구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55
- 함께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157
- 자립준비청년의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의 책임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158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61

국민안전·재난 위기관리

- 문제 해결은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162
- 소방관들의 생명과 건강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지키겠습니다 164
- 아이가 행복한 사회가 어른도 행복한 사회입니다 166
- 여성의 안전이 사회의 안전입니다 168

기후·환경

-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안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169
- 탄소제로를 위한 행동만이 지구온난화를 멈출 수 있습니다 171
-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생명의 바다를 꿈틀거리게 할 것입니다 173
- 자연과 공존을 위해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노력도 시급합니다 174
- 한국 국민은 지구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176
- 국제메탄서약 가입국으로서 국내 메탄 감축을 위한 노력을 책임 있게 실천하겠습니다 178

노동존중·공정사회

-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 공포됩니다 180
- 우리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해 쉽 없이 달려왔습니다 182
- 공동체 가치를 우선하는 협동조합에 지속가능발전의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다 183
- 사회적경제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84
- 여성의 사회적 기여와 헌신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186

교육·문화

- 우리에게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188
- 문화·예술·스포츠를 통해 만든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190

- 한글은 태어날 때부터 소통의 언어였습니다 192
-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194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균형발전

- 국가균형발전의 꿈은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이뤄질 것입니다 197
-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해야 합니다 198

지방분권

-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지표입니다 200
-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202
-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4
-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입니다 206

지역경제 활력·지역균형 뉴딜

-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농업은 값진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208
- 에너지 변방국에서 에너지 독립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에 섰습니다 209
-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211
- 초광역협력의 성공은 광역교통망에 있습니다 213
- 동해선은 경제철도입니다 215

-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찾는 시도입니다 216
- 조선산업의 완전한 부활을 알리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218

해양에너지·해운산업

-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로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220
- 우리의 목표는 세계 1등 조선 강국을 굳히면서
세계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224
- 한국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에
독보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26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강한 국방

- 군사법원법 개정이 공포됩니다 229
- 우리 국군은 최첨단 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230
- 반드시 우리 군과 함께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235
-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입니다 236

한반도 평화

-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238
-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242
- 한국전쟁 당사국들의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합니다 244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진시켰던 원동력은
대화와 협력의 정신이었습니다 246

경제안보

- 우리는 보호무역과 새로운 무역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248
-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이며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250
-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252

평화경제·남북관계

-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254
- 종전선언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입니다 256
- 평화와 번영,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입니다 257
- 한반도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258

국제협력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생협력을 이끄는
가교 국가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260
- 지구공동체 시대는 함께 지혜를 모으고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262
- 코로나19 극복을 비롯한 보건 협력 강화가 절실합니다 264
- 연대와 협력만이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66
- 세계 경제의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도
정책 공조가 절실합니다 267

신남방·신북방 정책

-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토대로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69
- 신북방 14개 나라와 맞춤형 협력사업을 펼쳤습니다 270

키워드로 읽는 문재인정부

2021. 5. 10 ~ 2022. 5. 9

문재인정부의 5대 국정목표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및 성과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글을 부분 발췌했습니다.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희망의 오월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열립니다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메시지 | 2021. 5. 18

지난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인권 유린과 폭력, 학살과 암매장 사건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계엄군이 유족을 만나 직접 용서를 구하는
화해와 치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민을 향해 기관총과 저격병까지 배치하여 조준사격했다는
계엄군 장병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광주와 진실,
그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월 광주와 함께합니다.

옛 전남도청 건물을

1980년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쳤습니다.

박용준 열사는 등사 원지에 철필로 원고를 옮겨 적어

광주시민들의 소식지 <투사회보>를 만들었습니다.
계엄군의 총이 잦아간 그의 삶이 '박용준체'를 통해
우리 품으로 돌아옵니다.
민주주의를 새롭게 열어갈 미래세대들을 위한
오월의 선물들입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을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부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 2021. 6. 24

애국은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국난 앞에서 애국으로 단합했고,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전쟁이 가장 평범한 사람을
가장 위대한 애국자로 만들었고,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우리 모두의 역사적 경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참화에 함께 맞서고 이겨내며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났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힘을 키웠고,
평화의 소중함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이 비슷한 출발선에 있었던
개발도상국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듯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는
오늘의 우리 역시 세계인들에게 희망의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일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영상 축사 | 2021. 8. 14

고(故) 김학순 할머니께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은 가슴에 묻어온 고통을 증언했고,

우리는 할머니들을 통해

결코 잊을 수 없는 역사를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외 법정과 증언장에서 울려 퍼진 할머니들의 증언은

여성의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논의를 크게 진전시켰습니다.

할머니들께서 역사를 바꿔 오셨습니다.

전쟁과 전후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

꺼이지 않는 인간의 존엄을 증명해 주신

할머니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는 일입니다.

할머니들의 증언, 시민사회, 학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역사적 진실의 토대 위에

용서와 화해의 미래가 꽃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기록물 발굴부터 연구와 보존, 전시의 추진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피해자 증언의 번역과 발간사업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한일 양국과 세계의 젊은이들이

피해 할머니들의 삶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길 바랍니다.

역사의 정의로 이어진 기억과 연대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청원 4주년 관련 영상 축사 | 2021. 8. 19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입니다.
지난 4년 동안 100만 건의 국민청원이 있었고,
2억 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국민청원은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룬 사례들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민청원 4주년 관련 영상 축사(2021. 8. 19)

다른 사람의 인권이 보장될 때 나의 인권도 보장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 2021. 11. 25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의 개념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부딪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속에서 발생하는 격차 문제도
시급한 인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2021. 11. 25)

정부는 인권위원회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 존엄과 권리는 언제나 확고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일궈낸 소중한 성과이며,
우리의 존엄과 권리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순간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의 인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권을 위해 눈 뜨고 있어야 합니다.
자유와 평등, 존엄과 권리를 위해
생생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적대와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 2022. 1. 12

대통령으로서 한 가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남은 마지막 과제가
국민 사이에 지나친 적대와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치가 해냈어야 할 몫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선거 시기가 되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통합의 사회, 통합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종교 지도자들께서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위기를 넘는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되고,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께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2022. 1. 12)

국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 2021. 10. 5

조국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국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해외 체류 국민과 재외동포의 보호와 지원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실천해 왔습니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을 영사실로 승격시키고,

해외 사건·사고 전담 인력도 대폭 확충했습니다.

2018년 문을 연 해외안전지킴센터는

365일 24시간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동포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인회와 협력하고, 현지 정부와 공조하여
막힌 하늘길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122개국 6만 2,200명의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귀국시켰고,

46개국 2만 2,500명의 재외국민을

거주국으로 안전하게 복귀시켰습니다.

올해 1월부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재외국민보호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정부 13개 부처가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더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2021. 10. 5)

한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화상) | 2021. 12. 9

자유 경쟁으로 인해 커지는 격차와 양극화는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기후위기, 세계화, 양극화 같은 심각한 도전 속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킬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첫째,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웃과 함께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임을
방역과 백신 접종, 일상회복을 통해 증명하고자 합니다.

둘째, 코로나19 격차를 최소화하고 함께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더 피해 보는 계층을 돕고,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입니다.
민주주의의 힘은 투명성과 공정에 대한 신뢰에서 발휘됩니다.

한국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제도로 반부패 정책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정부혁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개발도상국과 나누겠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지만,
자유무역의 국제규범을 준수하며 성장했고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개발도상국에서 최초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권위주의가 국민을 억압할 때마다 한국 국민은
평화적인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켰습니다.
민주주의는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항상 새로워질 뿐입니다.

열린정부는 전진하는 민주주의의 동력입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 글로벌 서밋 개최식 영상 축사 | 2021. 12. 15

열린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민주성입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연방정부는
2015년부터 연방정부 재정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뉴질랜드 의회는 2016년부터 법률문서를
개방형 문서로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린정부의 가치는 이제 세계 시민사회와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국내외 모든 상황과 정책 방향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은 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할 것이라고 믿고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일상을 지켜냈습니다.

한국의 열린정부 경험은 신뢰의 바탕이 되었고,
위기 극복의 저력이 되었습니다.

한국 국민은 ‘열린재정’과 같은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부패를 감시해 왔습니다.
온라인 ‘공공기관 알리오’에는
지난해 1,029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7월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제안받고 시민사회와 논의해 선정한
14개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며
열린정부 공동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디지털 약소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열린정부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열린정부파트너십 운영위원회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경찰 스스로 더욱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76주년 경찰의 날 메시지 | 2021. 10. 21

올해는 자치경찰제 원년입니다.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여 분권과 함께
주민밀착형 풀뿌리 치안을 안착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의
3원 체제를 구축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생활 치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경찰을 신뢰합니다.
그만큼 경찰 스스로 더욱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사이버 공간의 신종 범죄로부터 국민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인권행동강령’ 또한 경찰문화로 온전히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경찰이 자긍심을 갖고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영웅들의 용기와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워싱턴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 | 2021. 5. 21

취임 후 첫 순방에서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았습니다.
양국 국민은 장진호 영웅들의 용기와 숭고한 희생에
깊이 공감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새로 발굴된 다섯 분 영웅들의 유해를
최고의 예우를 다해 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참전 영웅들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보내드리며
한국 국민 역시 큰 감동과 위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마지막 한 분의 영웅까지
떠나온 고향,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워싱턴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2021. 5. 21)

애국은 이제 인류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 2021. 6. 6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애국심 위에 서 있습니다.
독립과 호국의 영웅들은 대한민국을 되찾았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 위에서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 가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애국은 우리 모두의 정신이 되었고,
공동체를 위한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웃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공동선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같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구 차원의 공존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애국심도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애국심은 공존 속에서 더 강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곳곳에는 독립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이웃을 위한 따뜻한 헌신까지
거대한 애국의 역사가 면면히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애국의 한결 같은 원동력은 공동체에 대한 믿음입니다.
독립·호국·민주의 굳건한 뿌리를 가진 우리의 애국은
이제 인류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민주와 인권, 자유와 평화, 정의를 갈망하는 세계인들과 함께
감염병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승리와 희망의 역사입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 | 2021. 8. 18

3·1독립운동 정신 위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해 치러진 독립전쟁 첫 승리라고 불렀던 봉오동 전투와
독립전쟁 최대의 승리인 청산리대첩을 이끌었던
독립전쟁의 영웅,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
오늘 마침내 고국산천에 몸을 누이십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는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만든 승리와 희망의 역사입니다.
모두가 함께 만든 승리는 나라를 잃은 굴종과 설움을 씻고,
일제 지배에 억압받던 삼천만 민족에게
강렬한 자존심과 자주독립의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장군은 우리 민족 모두의 영웅이며 자부심입니다.

선조들의 고난을 뒤돌아보며 보란 듯이 잘사는 나라,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을 제대로 밝히고,
독립유공자들과 후손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그 시작일 것입니다.

아직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애국지사들이 많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으며,
가려진 독립운동의 역사가 많습니다.



2

더불어 잘사는 경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한국판 뉴딜의 진화가 시작됐습니다

한국판 뉴딜 2.0 전략회의 | 2021. 7. 14

한국판 뉴딜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당면한 위기 극복뿐 아니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진화를 거듭하며 희망을 만들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디지털 뉴딜에 중점을 두고 출발했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린 뉴딜을 또 다른 축으로 세우며
본격적으로 한국판 뉴딜의 진화가 시작됐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한국판 뉴딜의 토대로 삼으며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지역균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정신으로 정립되며
지역 확산의 발판도 마련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 2.0은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고 포용적 전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2.0 전략회의 | 2021. 7. 14

세계는 디지털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나서고 있고,
저탄소 경제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2.0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계획입니다.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노동이동 등
포용적 전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추가하여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습니다.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의 일상과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한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사업구조 개편을 적극 지원하고,

직무전환 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2.0 전략회의(2021. 7. 14)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게 하겠습니다

2022년 신년사 | 2022. 1. 3

지금까지 우리는 빠른 추격국가로

성공의 길을 걸으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빠른 추격자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서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앞서가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가전략산업과 첨단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력 속에

산업별 K-전략을 가속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수소 선도국가 전략도 힘차게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에

튼튼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 선도국과 후발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도 다하겠습니다.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임기 마지막까지 펼치겠습니다.

문화 강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소프트파워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2022년 신년사(2022. 1. 3)

탄소중립은 기술과 산업 혁신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 2021. 5. 29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 노력에 나섰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물론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총 12개 업종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RE100(재생에너지 100%)에 동참하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112개 금융기관들은 기후금융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기술개발 R&D를 확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재정과 공적 금융이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과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인간과 지구의 공존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용적 녹색회복의 길에 함께할 것입니다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식 | 2021. 5. 30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연대가 더욱 굳건해지길 바라며,
한국 국민을 대표해 국제사회에 몇 가지를 약속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하겠습니다.

해외 신규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한국이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서 산림회복을 이룬 것처럼
개발도상국들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전환을 돕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생물종의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도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해운과 선박 분야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2021. 5. 30)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넷째,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인간이 지구와 공존하기 위한 길이지만
혁신기술, 혁신산업, 혁신적인 일자리 등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차관 신설을 계기로 각 부처가 협업하여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제29회 국무회의 | 2021. 7. 6

산업부에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도 공포됩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그린 뉴딜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제시하고
산업, 건물, 수송 등 전 부문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차관 신설을 계기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수소경제 산업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스마트 전력망 구축과
산업단지의 고효율·저탄소화,

녹색산업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산업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자리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공정한 전환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새로운 무역질서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제40회 국무회의 | 2021. 9. 14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음 달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상향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의욕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실천해냄으로써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내부적으로도 과감한 에너지 전환과 경제·사회구조 혁신 등
저탄소사회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산업계와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새로운 무역질서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기업들에게 더욱 절실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난주 국내 10대 그룹을 포함해 15개 기업들이 모여
수소기업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선도산업으로서
수소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우리 기업들의 협력과 투자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천명한 것처럼
수소경제 선도국가의 비전을 분명히 세우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등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노력에 응원을 보내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흐름에 중소기업들도 뒤처지지 않고
빠르게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계는 탄소중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에너지와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 | 2021. 9. 17

탄소중립 목표를 추가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탄소중립을 법으로 규정한 열네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다음 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할 예정이며,
11월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추가 상향한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발표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15개 민간기업들이 수소동맹을 결성하여
2030년까지 수소경제 전 분야에 43조 4,000억 원을
투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2045년까지 자동차의 생산공정까지 포함하여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나라마다 형편이 다릅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에 이른 시기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에너지와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2021. 9. 17)

그러나 세계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고,
우리는 자연과의 공존을 위해
반드시 함께 성공을 거두어야 합니다.

탄소 없는 수소산업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수소환원제철 포럼 영상 축사 | 2021. 10. 6

철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역사입니다.
철의 발견으로 농업혁명이 일어났고,
인류는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철강산업은 19세기 산업화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철은 강력한 내구성을 지녔으며 재활용이 가능하기에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입니다.
지금과 미래의 지구 환경을 위해
지난 3,000년 변함없이 이어져온
탄소 기반의 제철기술에서 변화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철강을 생산할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어야만
철강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석탄 대신 수소로 철을 추출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경제와 수소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지하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수소경제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청정수소를 위해 2050년까지

그레이수소를 블루수소와 그린수소로 100% 전환하고,

그린수소의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힘을 모아

탄소 없는 21세기의 원유, 수소산업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수소환원제철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소 생산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철강산업 비중이 큰 한국이 먼저 행동하고

세계와 협력하겠습니다.

수소 시대는 지하자원이 아닌

기술과 혁신이 에너지의 주역이 되는 세상입니다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회 | 2021. 10. 7

수소는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입니다.

수소경제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며

2050년에는 12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는 지구 어디에서나 평등하게 얻을 수 있는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에너지원입니다.

수소 시대는 지하자원이 아니라

기술과 혁신이 에너지의 주역이 되는 세상입니다.

정부는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대한민국 핵심 미래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그레이수소 100% 공급 구조를 2050년까지

100% 청정수소로 전환하겠습니다.

우리 기술과 자본으로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도입하는 사업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수소를 쉽게 충전할 수 있고,

전국 곳곳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빈틈없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수소 활용이 일상화되는
탄소중립 대한민국을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범국가적 전방위 협력으로
수소경제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정부는 수소산업 모든 분야에 걸쳐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간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수소경제 인력 양성 로드맵을 수립하여
미래인재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국제협력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수소경제를 위한 글로벌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제2세션 | 2021. 10. 31

한국은 석탄 감축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석탄발전소 여덟 기를 조기 폐쇄했고,
올해 말까지 두 기를 추가 폐쇄할 예정입니다.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기할 것입니다.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도 이미 중단했습니다.
한국은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공감하며,
국제메탄서약에 참여할 것입니다.

한국이 그린 뉴딜을 통해 만들어내고 있는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입니다.
정부는 민간 기술개발과 투자를 뒷받침하며,
탄소중립 속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특히 수소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고,
수소 활용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수소경제를 위한 글로벌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회(2021. 10. 7)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APEC CEO 서밋 '에너지의 미래' 세션 기조연설 | 2021. 11. 11

한국 국민과 기업,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진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소개하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과 함께해 나갈
포용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에너지 전환을 위한 민간과 정부의 포용적 협력입니다.
한국은 석탄화력발전과 결별하고 있습니다.
대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분산할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은 그린 인프라 구축에 520억 달러를 투입하고,
기술과 금융지원으로 산업계 저탄소 경제 전환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둘째,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역내 협력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했고,

기업들도 370억 달러 수준의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수소기업협의체를 결성하여
수소의 생산·유통과 활용까지
수소경제 전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경을 넘는 나라 간의 포용입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녹색기후기금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유치했고,
기후 재원을 조성하여 이웃 국가들과 동행해 왔습니다.
지난 5월 개최한 P4G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동의하는
서울선언문을 이끌어냈습니다.
기후위기에 국경이 없듯 대응과 협력에도 국경이 없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가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야 합니다.

상생과 협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 | 2021. 7. 2

지난 2년 우리는 상생과 협력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협력의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극복의 성공 공식을 찾았습니다.

소·부·장 수요기업인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손을 잡았습니다.

핵심기술을 빠르게 국산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단계부터 실증, 양산 과정까지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성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대 품목의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으로

대(對)일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소재들입니다.

이 과정에 중소·중견기업들의 활약이 대단히 컸습니다.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2021. 7. 2)

이제 대한민국 소·부·장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소·부·장 2.0 전략을 토대로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생산 허브가 될 5대 첨단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기업들의 도전을 더 든든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모든 세대는 지구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최식 | 2021. 9. 20

우리는 위기 극복을 넘어서서
보다 나은 회복과 재건을 이루어야 합니다.
서로 연결된 공동의 실천이 이뤄진다면
분명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포용과 상생의 마음을 지금 즉시,
함께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평한 접근과 배분이 시작입니다.

둘째, 국경을 넘는 협력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탄소중립 목표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후 선진국들의 경험과 기술이
개발도상국들과 공유되고, 전수되고, 협력이 이뤄져야 합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를 존중하며
세대 간 공존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세대 간 생각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야 합니다.
모든 세대는 국적과 인종, 성별을 뛰어넘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지구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최식(2021. 9. 20)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려면 재정이 탄탄한 디딤판이 되어야 합니다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 2021. 5. 27

올해 우리는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 역량을 최대한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려면
재정이 탄탄한 디딤판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뒤질 수 없습니다.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재정지출뿐 아니라 세제, 정부조달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처럼 재정이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재정 여력 또한 함께 늘어나는
재정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정부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하여
포용성 강화, 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지원을 늘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수출이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 수출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수석·보좌관회의 | 2021. 9. 6

수출이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 수출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6개월 연속 월별 수출액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역대 최단기간에 수출 4,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입니다.
양적인 면에서 놀라운 성장세와 함께 질적인 면에서도
한국 경제의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력산업과 신성장 유망산업이 모두 선전하며
사상 최초로 15개 주요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신산업의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출 호조에 따라 상반기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주력산업은 반도체, 조선, 스마트폰, OLED, TV 등이
세계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해 굳건한 지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시대적 대세인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에 사활을 걸고
속도를 높여나간다면
우리 수출산업의 미래경쟁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입니다.

한국은 유망하고 지속가능하며 안정적인 투자처입니다

2021 외국인투자주간 포럼 영상 축사 | 2021. 11. 3

한국은 유망하고 지속가능하며 안정적인 투자처입니다.
감염병·재난재해 같은 위기에
대응 능력이 뛰어나고 경제회복력도 우수합니다.
록다운(Lockdown) 없이 코로나19 확산을 우수하게 통제했고,
기업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올해 주요국 성장 전망치가 대부분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도
4.3%의 높은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 또한 최고 수준을 유지 중이며,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도 7년 연속 5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도 활발하여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세계지식재산기구 글로벌 혁신지수 아시아 1위의
혁신 강국으로 발돋움하였으며,
신기술, 신제품을 사업화하기에 좋은 최적의 테스트베드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대형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2.0을 추진 중입니다.
이미 세계의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K-뉴딜, 소재·부품·장비, 바이오 분야 투자를 비롯해

역대 2위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의 변화와 도전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 | 2021. 12. 6

우리 경제사에서 2021년은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올해 사상 최단 기간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우리는 한 계단 더 뛰어올라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우리 무역은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내실도 튼튼하게 다졌습니다.

주력산업과 신산업이 모두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조선은 사상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석유화학 수출도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메모리반도체는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지켰고,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과

이차전지, OLED 수출 역시 두 자릿수 증가율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한류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문화콘텐츠 수출이 3년 연속 100억 달러를 넘어

새로운 수출동력이 되었고,

한류의 열기에 힘입어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농수산물 역시 사상 처음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K-뷰티도 세계 3위권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은 지난 11월에 이미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18년의 연간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수출동력은 다양해지고,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의 설립 후 최초 사례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수출규제부터 코로나19까지

연이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도전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꿔낼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무역 강국, 경제대국으로 힘차게 달려갑니다.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2021. 12. 6)

강한 경제 반등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7회 국무회의 | 2022. 2. 8

우리 경제의 기초는 어느 때보다 튼튼하며
강한 경제 반등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 불안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대응계획을 마련해 두기 바랍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대외적인 물가상승 압력 속에서
국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특히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다각도의 물가안정 대책을 적기에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이룬 경제회복인 만큼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확대경제장관회의 | 2021. 6. 28

올 하반기는 집단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경제에서도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이후
대재건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그린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에 나섰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가속화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는
옳은 방향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초부터 ICT, 반도체, 배터리, 조선, 해운과 같은
주력업종 경쟁력을 더욱 강하게 키웠고,
특히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를
3대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해 온 것이 적중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과 가능성에 대해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없는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위기와 불균등 회복 속에서 더 심화되기 쉬운
불평등의 확대를 막는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반드시 이뤄주기 바랍니다.
위기의 시대에 커지기 쉬운
시장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이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룬 경제회복인 만큼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회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대경제장관회의(2021. 6. 28)

다 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 2021. 7. 26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매년 예산 규모를 크게 늘려온 것에 더하여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올해 두 차례 추경까지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높여왔습니다.

그 결과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4% 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시장소득 불평등을

재정을 통해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도 내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멉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하겠습니다.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 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민생경제장관회의 | 2021. 7. 29

오는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
5만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역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재정의 직접적인 역할 못지않게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상품들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더욱 높여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공정한 회복과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 일자리 회복까지 이루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적극적 재정정책은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제38회 국무회의 | 2021. 8. 31

코로나19 사태로 민간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은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OECD, IMF 등 국제기구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평가하듯이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운용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재정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고,
심화하는 시장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완성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 2021. 10. 25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 4,000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첫째,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특히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습니다.

둘째, 코로나19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아프면 쓸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데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국방예산을 55조 2,0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합니다.

위기 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완성됩니다.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2021. 10. 25)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2022년 신년사 | 2022. 1. 3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병상과 의료진도 대폭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먹는 치료제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고비를 넘어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길게 내다보고 국민과 함께 두텁두텁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일상회복의 희망을 키워가겠습니다.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되고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의 양적·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인과 구직 사이의 일자리 부조화를 빠르게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수석·보좌관회의 | 2021. 5. 17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속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디지털과 그린, 혁신벤처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력과
인공지능 인력이 크게 부족해졌습니다.
기업 수요에 맞춘 인력 양성과 교육·훈련의 확대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구인과 구직 사이의 일자리 부조화를
빠르게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걱정이 큰 청년들과
일자리 이동이 필요한 분들에게
미래에 맞는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은 정부가 당연히 힘써야 할 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완전한 경제회복은 국민 모두의 삶이 골고루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사람중심 회복이라 할 것입니다

제109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기조연설 | 2021. 6. 17

한국은 그동안 노사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가
양보하고 협력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꾸준히 확산해 왔습니다.
정부도 노사의 상생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나누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재정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면서
공공부문이 일자리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전 국민 고용보험 등으로
실직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병수당 도입 등
복지 확대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키웠던 과거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당면한 위기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으로 이어질 때
진정으로 사람중심 회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민생경제장관회의 | 2021. 7. 29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입니다.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19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의 일자리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코로나19 위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미래를 향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당부합니다.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제24회 국무회의 | 2021. 6. 8

일자리의 양극화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자리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층과 여성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양극화와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등
해결할 과제가 많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하여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기업은 필요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은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청년희망은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 2021. 12. 27

청년희망은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사는 상생의 전략입니다.
기업은 필요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은 기업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고,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세대입니다.
더욱 나은 미래를 꿈꾸며 노력하는 열정과 절실함을 갖고 있고,
국제적 감각과 시야를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길을 잘 열어주고 기회를 만들어 주기만 한다면
세계 경제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기업인 여러분께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도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청년희망은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2021. 12. 27)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다각도로 협업해 나가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운을 계기로
더 많은 청년들이 기업의 선진적 교육·훈련을 경험하고,
구직과 창업 지원 기회를 얻기 바랍니다.
정부도 힘껏 협력·지원하겠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사업을 통해
청년의 구직과 기업의 구인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성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희망의 중심에 섰습니다

제31회 국무회의 | 2021. 7. 20

우리 정부 유일한 신생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인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혁신벤처와 스타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앞장섰고 많은 성과를 내며
우리 경제의 희망을 키웠습니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희망의 중심에 섰습니다.
벤처기업 수와 벤처투자액이 대폭 늘어나는 등
제2벤처 붐이 확산되었고,
유니콘기업이 대폭 늘어나는 등 혁신벤처기업이 크게 성장하며
코스피 3,000시대, 코스닥 1,000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들의 디지털 혁신에 가속도가 붙었고,
K-방역 제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만큼 진보하고, 혁신하는 만큼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제2벤처 붐 성과 보고회 | 2021. 8. 26

제1벤처 붐과 다른 준비된 벤처 붐으로
우리 벤처기업들은 더 높이 도약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세계시장에서도
우리 벤처기업들이 힘차게 약진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일자리에서도 든든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하여
세계 4대 벤처 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습니다.

첫째, 혁신적인 기술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인재와 자금 유입을 촉진하여
벤처기업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재투자를 위해
M&A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도전하는 만큼 진보하고 혁신하는 만큼 도약할 수 있습니다.
추격의 시대에 쌓은 자신감은 간직하면서
추월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공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벤처산업이 그 해법을 쥐고 있습니다.

벤처는 그 자체로 혁신이며 도전입니다.
벤처창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성장할 때
수많은 아이디어와 가능성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2벤처 붐 성과 보고회(2021. 8. 26)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량은 혁신에서 나옵니다

제42회 국무회의 | 2021. 9. 28

우리의 혁신 역량은 국제사회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올해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에서
눈부신 도약이라고 극찬을 받으면서
혁신 상위 20개 중 가장 큰 상승 폭으로
작년보다 다섯 계단이나 올라선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6월 EU의 혁신지수 평가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유럽의 글로벌 경쟁국 10개국 중에서
9년 연속으로 우리나라가 1위를 기록하였고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도 당당히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혁신 강국 대한민국의 굳건한 위상은
대전환시대 선도국가 도약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혁신을 무기로 디지털과 그린 대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경제·사회구조 전환과 산업 혁신에 가속도를 붙여 나가겠습니다.

신산업·신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대전환을 향한 혁신의 힘찬 발걸음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기업의 담대한 도전과 혁신에 과감한 지원으로 응답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 | 2021. 12. 10

탄소중립 시대에도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주역입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정책을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친환경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고탄소산업을 첨단 저탄소산업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가격이 비싸더라도 친환경 상품을 선택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거래업체와 협력업체까지
탄소중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담대한 도전과 혁신에
과감한 지원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첫째, 탄소중립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저해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탄소 감축 노력이 정당한 가치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공조달 등을 개편하겠습니다.

둘째, 탄소중립 산업과 기술을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키우겠습니다.

공정 전환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은
그 자체로 수출 상품이기도 합니다.

셋째, 중소·중견기업, 지역을 위한 맞춤형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의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기술은 지금으로서는 미래기술로 초기비용이 상당하고
개발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데 따른 부담이 큼니다.

그 부담을 정부가 나누겠습니다.

초강력 탄소중립 생태계 전환을 추진하여
국가균형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에너지전환을
안정적이고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시장을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에너지의 적정 가격을 유지하겠습니다.

희귀광물과 수소를 비롯한 핵심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로
경제안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2021. 12. 10)

선도형 경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는 경제입니다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 | 2021. 8. 15

세계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에 서서
선도국가로 나아갈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는 경제이며,
사람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지난해까지 유니콘기업이 15개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제2벤처 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선 수주 세계 1위, 자동차 세계 5강, 메모리반도체에 이어
시스템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에서도 선전하며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총 220조 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은
사람중심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로드맵이자
새로운 도약을 이룰 국가발전전략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함께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축으로 세웠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로 디지털과 그린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인력 양성을 통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디지털과 그린 전환의 과정에서

뒤처지는 국민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에도 힘쓰겠습니다.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믿습니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회 | 2021. 12. 20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미래 먹거리 창출과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주력 제조업과 신산업이 눈부신 성장세를 이끌고 있고,
제2벤처 붐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미래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의 관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부와 국민, 기업 모두 힘을 모아 이룬 국가적 성취입니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습니다.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굵고 짧은 방역 강화로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산업 성장과 벤처 활력이 민간 일자리 확대에 이르지도록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회(2021. 12. 20)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구조와 근로 형태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안전망을 더욱 보강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2.0의 본격 추진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믿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신년사 | 2022. 1. 3

위기와 격변 속에서 우리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났습니다.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였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무역 강국, 수출 강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지난해 3만 5,000달러로 올라섰고,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신산업 분야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더욱 긍정적 변화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경제 체질이 위기 속에서도 튼튼해졌습니다.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모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고,

빠른 회복과 강한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K-반도체 전략 보고회 | 2021. 5. 13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디지털 경제 전환이 빨라지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고,
장기간에 걸쳐 호황이 이어지는
슈퍼 사이클 진입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을 선제적 투자로
국내 산업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여
이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세계 주요 경쟁기업들이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역시 도전과 혁신을 계속해 왔고,

격변의 시기에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부도 2019년 시스템반도체 전략과 비전을 수립해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을 향해 함께 뛰었고,
민관이 힘을 모으며 뚜렷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 시대로 옮겨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등
파격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습니다.



K-반도체 전략 보고회(2021. 5. 13)

배터리 기술 발전은 한국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회 | 2021. 7. 8

배터리는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자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배터리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정보를 처리하는 두뇌라면
배터리는 제품을 구동시키는 심장과 같습니다.
사물인터넷으로 온 세상이 무선으로 연결되고
모든 물체가 배터리로 움직이는
사물배터리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의 열쇠도 배터리에 있습니다.
전기차를 비롯해 미래 수송수단의 핵심이 될
배터리 기술의 발전은
한국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시장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며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그 선두에 배터리산업이 설 것입니다.
제2의 반도체로 확실히 성장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회(2021. 7. 8)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포용의 힘을 더욱 키웠습니다

한국판 뉴딜 2.0 전략회의 | 2021.7.14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문을 힘있게 열었습니다.
디지털 혁신과 그린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포용의 힘을 더욱 키웠습니다.

적극적 재정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변화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구축되고 개방되었습니다.
전국 초중고에 스마트 기자재가 보급되는 등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과 함께
산업, 교통, 물류 등 SOC 디지털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간의 참여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이 디지털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사람에 대한 투자에
민간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활용할수록 더욱 가치가 커지는 것이 데이터입니다

제44회 국무회의 | 2021. 10. 12

국무회의에서 데이터 기본법이 공포됩니다.
지난해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의 물꼬를 튼 데이터
데이터경제 구축의 확실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일찍부터 데이터경제 전환을 선언하고,
한국판 뉴딜의 핵심 프로젝트로 데이터 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데이터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2년 만에 데이터 공급 기업이 3배 이상 증가하고,
데이터 시장 규모도 가파르게 성장하여
20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데이터가 경쟁력인 시대이며,
활용할수록 더욱 가치가 커지는 것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와 네트워크가 결합하여 기존 산업을 지능화하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해내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강국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디지털 혁신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 2021. 12. 2

국민 모두가 격차 없이 디지털로 혜택을 누릴 때
사람중심의 포용적인 디지털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미 마스크 앱, 모바일 백신 예약, 양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우리는 디지털이 만든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배움터는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KTX 예매법,
스마트 오피스까지 수준별 교육을 하고 있고,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로 서해의 작은 섬 아이들에게
영상강의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취약지역의 디지털 접근을 넓히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2021. 12. 2)

우리나라는 항공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 2021. 10. 20

저는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국산 전투기에 탑승해 우리 하늘을 비행했습니다.
수원기지에서 이륙해 천안 독립기념관과 서울 현충원,
용산 전쟁기념관 상공을 날아 이 자리에 착륙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FA-50의 능률한 위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FA-50은 고등훈련과 전투, 정밀 폭격이 모두 가능하고
가격 면에서도 높은 가성비가 입증된 뛰어난 경공격기입니다.

항공우주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빠른 회복이 예상되며,
특히 도심 항공교통 분야는 가파르게 성장할 분야로
시장 선점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기계 6위, 자동차 4위, 반도체 1위로

항공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기반산업과 연관이 높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습니다.
2030년대 초까지 전투기를 비롯한
다양한 유·무인 항공기 엔진의 독자개발을 이뤄내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의 역량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고체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비롯해
우주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
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집중하겠습니다.
우주 분야 민군 협력사업의 투자 규모를 확대하여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이루겠습니다.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2021. 10. 20)

누리호 시험비행,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됩니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관련 대국민 메시지 | 2021. 10. 21

누리호 비행시험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하게 이르지 못했지만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 기술입니다. 다만, 더미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 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누리호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 지 12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됩니다.

우주발사체 기술은 국가과학기술력의 총 집결체입니다. 기초과학부터 전기·전자, 기계·화학, 광학, 신소재까지 다양한 분야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톤 이상의 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아직 여섯 나라에 불과합니다. 먼저 개발한 나라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기술이기에 후발 국가들이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초정밀·고난도의 우주발사체 기술을
우리 힘으로 개발해 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목표 궤도에
정확히 쏘아 올릴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우주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흔들림 없이 투자할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누리호와 함께 드넓은 우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전진합시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연구자 격려(2021. 10. 21)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K-방역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 2021. 7. 12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대응입니다.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삼박자를 빈틈없이 가동하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코로나19 감염을 막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률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듯이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확산 저지의 중요한 방패막이면서

동시에 코로나19를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어줍니다.

정부는 도입되는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접종 시기를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방역의 핵심은 성숙한 시민의식입니다.

지난 1년 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할 때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서로 단합하며 위기의 파고를 넘어왔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백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힘있게 육성하고자 합니다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회 | 2021. 8. 5

바이오산업은 우리의 산업 혁신을 이끌 3대 신산업으로 성장하여
주력 수출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글로벌 백신 허브를 향해 과감하게 도전해야 할
적기입니다.

정부는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류의 보건위기 대응에 기여하고

백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힘있게 육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신종 감염병의 출현에

대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정부는 백신을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선정하여

앞으로 5년간 2조 2,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 소재·부품·장비의 생산과 기술을 자급화해

국내 기업들이 생산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도 중요합니다.

연간 200명 이상의 의·과학자를 새롭게 육성하고,

임상시험 전문인력 1만 명, 바이오 생산 전문인력 연간 2,000명 등

바이오의약품산업 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K-바이오랩 허브를 구축하고 첨단투자지구도 지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한 국산 백신의 신속한 개발도

매우 중요합니다.

차세대 백신인 mRNA 백신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산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임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원부자재 국산화, 특허 분석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할 단 하나의 방법은 국제 연대와 협력입니다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 | 2021. 9. 21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나와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더욱 굳건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보건 분야까지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확장하고,

감염병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협약 체결식은 4개월 만에 달성한 중요한 성과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서의 도약을 꿈꿉니다.

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지정했고,

지난달에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할 뿐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제사회와 협력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할 단 하나의 방법은 국제 연대와 협력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2021. 9. 21)

어느 때보다 더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 2021. 11. 29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민, 의료진이 힘을 모아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고비들을 여러 차례 넘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더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세계 5대 백신 강국, 바이오 선도국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선정 관련 메시지 | 2022. 2. 24

우리나라가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되었습니다.

백신 허브 국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쁩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과

교육 인프라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결과입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비롯해

여러 국가, 기구들과 백신 협력을 강화하며

세계 보건위기 극복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들의 백신 역량 증대를 위한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 양성의 허브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며

백신 자급화와 백신 불평등 해소에 적극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겐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우리 정부가 목표로 세운 세계 5대 백신 강국,

바이오 선도국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바이오 기업들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여

해외 수출과 백신 생산 허브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혁신 능력과 사람투자를 기반으로

성공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쉽 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휴먼 뉴딜을 통해 고용과 사회안전망,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영상 축사 | 2021. 9. 7

우리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여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이웃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며

이웃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로 돌봄 격차도 줄이고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한시 생계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2.0의 새로운 축인 휴먼 뉴딜을 통해

고용과 사회안전망,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더욱 촘촘하게 취약계층을 챙기고,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을 대상으로

돌봄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포용국가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사람투자를 확대하는 휴먼 뉴딜을 통해 사람중심의 포용적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 2021. 9. 21

한국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코로나19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코백스에 2억 달러를 공여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고,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하고 빠른 보급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사람투자를 확대하는 휴먼 뉴딜을 통해
사람중심의 포용적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함께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높아진 그린·디지털·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ODA(공적개발원조)도 확대하겠습니다.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2021. 9. 21)

건강보험이 코로나19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 주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회 | 2021. 8. 1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이 코로나19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 주었습니다.

국민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했습니다.

이제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하여 최대 150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2017 - 2021
병원비 걱정없는
튼튼한 나라



#의료비 부담감소

국민건강드림

병원비 걱정없는 튼튼한 나라



#4주년

#튼튼한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우리는 함께 회복하고, 함께 도약할 것입니다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 | 2021. 8. 15

촛불혁명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꾸 꿈은
나라다운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로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역시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유행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백신 접종도 목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며,
목표 접종률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회복하고, 함께 도약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두텁게 보상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고용기회를 늘리는 데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확대하여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2021. 8. 15)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국민청원 4주년 관련 영상 축사 | 2021. 8. 19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도 많습니다.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고,
근로환경 개선, 휴식 시간과 휴식 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육,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돌봄서비스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모두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하고 누구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간담회 및 기공식 | 2021. 12. 29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가
오늘 공주대학교에서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디지털과 문화콘텐츠, 마케팅과 바이오산업 분야 등에서
저마다의 꿈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국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 교육자원과 연계하여
재능 있는 장애 학생들에게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교육의 힘으로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발전을 이뤘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하고,
누구나 다름없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도 질 좋은 교육을 통해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도움이 되는
전문 지식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는 장애인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제고되어야 합니다.

장애 학생들에게 직업은 자립의 토대이자
 사회 속으로 나아가는 기반입니다.
 다양한 적성과 흥미, 꿈과 요구에 맞는 직업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전국 곳곳에 더 많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정부도 장애 학생들의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직업교육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부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2021. 12. 29)

함께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2022년 신년사 | 2022. 1. 3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살며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고용 형태와 사회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도 더욱 확충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 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더욱 줄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의 책임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 | 2022. 2. 10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 정부는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의 책임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호칭부터 ‘보호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바꿨습니다.

자립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사회로 나오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호 종료 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을

올해 1,000만 원 수준까지 확대했고,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신설한 데 이어

지급기간을 보호 종료 후 5년까지로 늘렸습니다.

경제적 지원과 함께 금융교육과 재무상담도 병행해

소득과 지출, 저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진정한 자립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연장된 보호기간 동안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자립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어려움은 주거 문제입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역세권과 대학가 등지의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여럿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거 지원을 비롯해

각자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자립의 토대가 되도록 살피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의 궁극적 목표는

청년들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튼튼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함께 잘사는 세상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가길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2022. 2. 10)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9회 국무회의 | 2022. 2. 22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제도입니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소득요건을 갖춘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의 적금 납입액에 대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입니다.

정부는 가입대상이 되는데도 인원이 한정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어려운 시기를 건너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은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 2021. 5. 17

요즘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 소식에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으며,
산업안전감독관을 크게 증원하는 한편
패트롤카를 활용한 현장 점검과 감독을 확대하는 등
예산과 조직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그러나 추락사고, 끼임사고 등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후진적인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회의에서 마련하는 대책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등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고에 대처하는 성의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자식을 잃은 가족의 아픈 심정으로
진정성을 다해 발로 뛰며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2021. 5. 17)

소방관들의 생명과 건강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지키겠습니다

제59주년 소방의 날 기념 메시지 | 2021. 11. 9

소방관들은 올 한 해 83만여 곳의 재난현장에서
6만 4,000여 명의 국민을 구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서도 확진·의심증상자와 해외입국자,
예방접종 관련자 등 42만여 명을 이송하는
신속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용소방대도 187개 예방접종센터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의 안전을 살렸습니다.

오늘 소방의 날 기념식은
국립소방병원 건립 예정지에서 열립니다.
국립소방병원은 2024년 재난거점병원으로 개원하여
소방관들의 진료, 재활치료, 심신안정을 도울 것입니다.
정부는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 약속을 지키고,
30%에서 80%까지 높아진 구급차 3인 탑승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희생과 헌신에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습니다.

2대째 소방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폭염 대응 소방관서 격려 방문(2021. 8. 6)

한 소방관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소방관은 현장에서 두 명을 구출해야 한다.
구조자와 바로 나 자신을 구하는 멋진 소방관이 되겠다.”
국민은 소방관을 깊이 신뢰합니다.
소방관 스스로의 안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방관들의 생명과 건강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지키겠습니다.

아이가 행복한 사회가 어른도 행복한 사회입니다

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메시지 | 2021. 11. 19

사람은 가장 천천히 성장하는 동물입니다.

걸기까지 적어도 1년,

뇌가 완전히 자라기까지 10년 넘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이 기간에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하고 익히며

사회구성원이 되어갑니다.

부모 역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통해 사랑을 키워갑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체벌도 용인할 수 없다는 의지를 모아

63년 만에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또한 3월부터 학대행위 의심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체벌을 용인하는 사회에서

모든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려면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부모와 자녀 간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양육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아끼고 존중하는 일은

곧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일입니다.

아이가 행복한 사회가 어른도 행복한 사회입니다.

정부는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성의 안전이 사회의 안전입니다

여성폭력추방주간 메시지 | 2021. 11. 25

정부는 법과 제도를 통해
안전한 울타리와 감정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스토킹처벌법,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했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과
신종 성범죄 대응체계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폭력에 희생당하는 여성들이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제도 정비를 꾸준히 하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1인 가구 여성,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고 교육·문화·예술·체육 분야와
민간·공공 분야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반성하고 거울삼으며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삶은 맞닿아 있습니다.
여성의 안전이 곧 사회의 안전입니다.
이 간명한 진실을 위해 노력해온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대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곧 나의 권리를 지켜내는 길임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안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 토론세션 | 2021. 5. 31

정상들은 기후위기가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안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데 동의하고,
코로나19 역시 녹색회복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녹색회복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자는
파리협정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정상들은 또한 P4G가 유엔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노력을 보완해왔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앞으로 물, 에너지, 식량 및 농업, 도시, 순환경제, 금융,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포용적이고 공정한 전환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기후행동 확산을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우리는 기업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지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을 촉구합니다.
경제·사회 구조 전반을 저탄소 방식으로 전환해야
미래세대가 생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오늘 우리의 선택이
미래세대의 삶을 결정한다는 인식하에
청년세대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2021. 5. 31)

탄소제로를 위한 행동만이 지구온난화를 멈출 수 있습니다

제2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 영상 축사 | 2021. 9. 7

푸른 하늘은 생활의 작은 불편함을 즐기고,
익숙해진 생활을 하나둘 바꿔 갈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 같은 추세로 계속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행동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탄소제로를 위한 행동만이 지구온난화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께서 해 오신 것처럼
저마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모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은 국제사회 협력도 선도했습니다.
녹색기후기금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를 유치했고,
자발적인 기후 재원 조성과 공여로 이웃 국가들과 함께했습니다.
지난 5월 개최한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을 함께 포용하는
서울선언문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난주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탄소중립을 법으로 규정한 열네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상향 목표를
올해 안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푸른 하늘을 향해 우리 사회와 경제구조를 대전환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 2.0에서 그린 뉴딜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과 기업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기술 혁신과 대형화, 주민 참여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을 더욱 끌어올리겠습니다.
정부는 탄소국경세를 비롯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생명의 바다를 꿈틀거리게 할 것입니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 메시지 | 2021. 9. 15

잠깐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에는
450년이 걸립니다.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은 물론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정부는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위한
전용 선박과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병행하며
국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줄이고,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 것입니다.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도
더욱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바닷가 쓰레기를 줍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생명의 바다를 꿈틀거리게 할 것입니다.
‘바다를 마중하다’라는 올해 국제 연안정화의 날 슬로건처럼
우리과 미래세대가 깨끗한 바다를 온전히 마중하기를 기원합니다.

자연과 공존을 위해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노력도 시급합니다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 개최식 영상 축사 | 2021. 10. 7

한국은 저탄소 경제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며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2025년까지 520억 달러를 투입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산업계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탄소 경제 전환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COP28(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을 유치하여
세계와 함께 탄소중립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연과 공존을 위해 해양과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노력도 시급합니다.

자연 생태계의 균형 복원은

자연이 가진 자정능력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지구가 온실가스를 흡수해 기후를 유지하고

물과 대기의 오염물질을 분해하며

생명체들에게 영양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양 플라스틱 대응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한국 국민은 지구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 2021. 11. 1

지구의 말에 귀 기울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하며 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243개 모든 지방정부는

세계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공동선언했습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탄소중립 범국민 실천운동에 나섰습니다.

기업들은 RE100(재생에너지 100%)에 참여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며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늘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을 공식 약속합니다.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가파르게 감축해 나가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30%의 메탄 감축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한국은 국제메탄서약에 동참합니다.

한국의 성장 경험을 살려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경제 전환을 돕는 데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녹색기후기금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통한 기후 재원 지원을 계속하고,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ODA(공적개발원조)를 늘리고,

P4G의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기후행동이 어떤 경우에도

온실가스 증가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환경건전성의 정신을 지지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나라로서

선진국들이 바라는 감축과 개발도상국들이 바라는 적응과 재원이 균형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21. 11. 1)

국제메탄서약 가입국으로서 국내 메탄 감축을 위한 노력을 책임 있게 실천하겠습니다

국제메탄서약 출범식 | 2021. 11. 2

한국은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목표에
2030년까지 30%의 메탄 감축 방안을 담았습니다.
에너지, 농축수산, 폐기물 분야에서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
매립지와 처리시설에서 메탄가스를 회수하여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내 감축 노력뿐 아니라
이웃 국가들의 메탄 감축에도 함께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메탄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과 경험, 기술을 공유하고,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국제메탄서약의 출범이
녹색 지구를 만든 연대와 협력의 이정표로
미래세대에게 기억되길 바랍니다.



국제메탄서약 출범식(2021. 11. 2)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 공포됩니다

제24회 국무회의 | 2021. 6. 8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 공포됩니다.
노동존중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사서비스와 가족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우리 사회의 서비스산업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열악한 근로자 조건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들로서도 가사서비스가 표준화되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해 쉽 없이 달려왔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영상 축사 | 2021. 11. 2

우리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해 쉽 없이 달려왔습니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20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했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의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기업과 공공 분야에서

여성 대표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도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평등하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공동체 가치를 우선하는 협동조합에 지속가능발전의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다.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최식 | 2021. 12. 1

세계는 협동조합운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가치를 우선하는 협동조합에

지속가능발전의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다.

협동조합운동의 출발점은

서로 도우면 함께 잘살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1844년 영국 로치데일 지역 노동자들은

생필품을 비싸게 판매하는 상인들에 맞서

공동구매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근대 협동조합이었습니다.

이윤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협동조합의 정신이 세계 곳곳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기업 간 협력이 더 긴밀해질 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상생협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최식 | 2021. 12. 1

우리 정부는 2017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금융, 판로,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민간과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사회적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이제 사회적경제는 한국 경제의 한 축으로 튼튼하게 뿌리내렸고,
상생과 나눔의 실천으로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워냈습니다.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우리는 그 희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최식(2021. 12. 1)

여성의 사회적 기여와 헌신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2022년 여성신년인사회 서면 축사 | 2022. 1. 27

여성들의 용기로 우리는 삶을 성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우리 사회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공동책임 의식이 커지면서
남성 육아휴직이 전체의 20%를 넘어섰습니다.

경력단절여성법,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되며
취업과 양육 지원이 확대되었고,
폭력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공공 분야는 물론 민간 분야에서도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변화의 물결을 지속시켜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닥칠 때
여성이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촘촘한 돌봄 시스템으로 양육 부담을 계속 줄여나가겠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여성폭력 방지 대책도 꾸준히 마련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기여와 헌신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사회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대표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제40회 스승의 날 영상 축사 | 2021. 5. 15

교육이 먼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변화 속 주역이 될 것입니다.
교육이 새로운 가능성과 마주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미래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교육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고단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아이들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선생님들,
아이들의 꿈 꿀 권리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정부도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금지 속에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소통하겠습니다.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식(2021. 5. 30)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선생님에게서 받은 인정과 사랑은
학생 자신의 참모습과 잠재력을 발견하는 힘이 됩니다.
좋은 스승이 되겠다는 다짐과 제자에 대한 믿음으로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걷고 계신 모든 선생님께
어느 제자의 마음을 바칩니다.

“선생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도 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스포츠를 통해 만든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 2021. 10. 5

동포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지난 9월 유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에서
세계 5위, 아시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EU의 글로벌 경쟁국 혁신지수 평가 1위와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에 이어

혁신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확인한 쾌거입니다.

무엇보다 문화·예술·스포츠를 통해 만든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나라를 뛰어넘는 공감과 연대의 힘으로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한류문화의 물꼬를 튼 것은 역시 재외동포분들입니다.

현지에서 축적한 공감과 유대의 기반 위에서

K-팝을 비롯한 K-드라마와 영화, 게임, 웹툰, K-뷰티와 푸드까지

한류의 물길을 끊임없이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알파벳 K는 대한민국의 품격과 소프트파워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되었고,

메이드 인 코리아는 세계인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2021. 10. 5)

한글은 태어날 때부터 소통의 언어였습니다

한글날 기념 메시지 | 2021. 10. 9

한글은 태어날 때부터 소통의 언어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쉽게 익혀 서로의 뜻을 잘 전달하자고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한글은 세계 곳곳에서 배우고,

한국을 이해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18개 나라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고 있고,

이 중 8개 나라의 대학입학시험 과목입니다.

초·중·고 한국어반을 개설하고 있는 나라가 39개국에 이르고,

16개 나라는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했습니다.

각 나라의 대학에서 이뤄지는 950개 한국학 강좌를 통해

한국어를 하는 우리의 외국 친구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현재 82개 나라, 234개 세종학당에서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이 한글과 우리 문화를 익히고 있습니다.

오늘 한글날 역시 세계 27개 나라, 32개 한국문화원에서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 최신판에

한류(hallyu), 대박(daebak), 오빠(oppa), 언니(unni) 같은

우리 단어가 새로 실린 것도 매우 뿌듯한 일입니다.

한글에는 진심을 전하고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덕분입니다’ 같은 우리말은

언제 들어도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지난 2005년부터 남북의 국어학자들이 함께

〈겨레말큰사전〉을 만들고 있으며,

지난 3월 가제본을 제작했습니다.

제가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전 세계에 보여주었듯이

남북이 같은 말을 사용하고

말이 통한다는 사실이 새삼스럽습니다.

한글이 끝내 남북의 마음도 따뜻하게 묶어주리라 믿습니다.

누리를 잇는 한글날이 되길 기원합니다.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제44회 국무회의 | 2021. 10. 12

한국 문화에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세계를 휩쓸고 영화, 게임, 웹툰 등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한류열풍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급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도 최근 10년간 12배 이상 증가하며

지난해 110억 달러에 달했고

무역수지 흑자폭도 꾸준히 확대되어

올해 상반기에 19억 6,000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은

K-푸드, K-뷰티 등 연관산업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면서

저작권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콘텐츠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 대한민국 위상을 굳건히 세우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의 꿈은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이뤄질 것입니다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 | 2021. 8. 15

우리 정부가 추구해온 국가균형발전의 꿈은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이뤄질 것입니다.
지방재정분권을 더욱 강화하고,
동남권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협력 모델의 성공과 확산을 통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켜야 합니다.
경기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경제회복의 혜택을 모두에게 나누어
함께 잘사는 나라의 꿈을
반드시 체감할 수 있는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 | 2021. 10. 14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초광역협력이 그것입니다.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해야 합니다.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2021. 10. 14)

일자리와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거점을 육성할 것입니다.

초광역협력은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입니다.

특히 초광역협력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도권처럼 광역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형성이 핵심적인 관건입니다.

당장의 경제성을 넘어서서 균형발전의 더 큰 가치를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지표입니다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 | 2021. 7. 1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지표입니다.

70년 전 먼 단위까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최초의 지방의회는

5·16군사쿠데타로 인해 일시적으로 멈춰 섰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방의회의 부활로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자치분권 3법이 통과되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막이 열리고,

국가사무 지방이양, 재정분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인사권 독립, 운영 자율화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됐습니다.

지방의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와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평등한 동반자로 지방의회와 협력하겠습니다.

항상 지방에서 배우고, 지방의회와 함께 상생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메시지 | 2021. 7. 1

자치경찰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입니다.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 작업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밀착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역별로 마련한 자치경찰 1호 시책들을 보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개선,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등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차별화된 정책들이 많습니다.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시행되며 성공 사례가 확산된다면

민생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정부도 자치경찰제가 튼튼히 뿌리내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29회 국무회의 | 2021. 7. 6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함께하는 회의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면서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인상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지방일괄이양법도 제정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을 통해 주민 주권을 강화하고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강화된 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가 함께 직면한 국가적 과제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입니다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 2022. 1. 13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입니다.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방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4년 반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400개의 국가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시·군·구 맞춤형 특례제도를 도입해

기초단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입니다.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입니다.

2월 중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둔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해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2022. 1. 13)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집니다.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해 가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농업은 값진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제26회 농업인의 날 기념 메시지 | 2021. 11. 11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었습니다.

K-푸드는 또 하나의 한류가 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공급망 위기가 농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부는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농가소득과 가격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공익직불제, 농산물 수급 관리 선진화와 소비 진작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탄소중립에 대비해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산지 유통망 확충,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고,

무엇보다 농업이 새로운 세대에게도 매력적인 일자리,

충분한 소득을 얻는 일자리가 되도록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변방국에서 에너지 독립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에 섰습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개시 기념 현장 방문 | 2021. 11. 24

2050 탄소중립의 핵심은 에너지전환입니다.

태양광은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은 별도의 토목 공사나

산림 훼손이 없어 환경친화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면 냉각 효과로 발전효율도 높습니다.

우리의 수상태양광은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원전 9기에 해당하는 발전량입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국내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 수상태양광이며,

온실가스 2만 6,000톤과 미세먼지 30톤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에도 큰 힘이 됩니다.

참여 주민들에게 국내 최초 수상태양광 연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대부분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던

에너지 변방국에서 에너지 독립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에 섰습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개시 기념 현장 방문(2021. 11. 24)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2021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 축사 | 2021. 12. 8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전략이며,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는 양보와 협력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함께 잘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뤄진 전 과정이
훌륭한 상품으로 새로운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전국 8개 지역, 9개 상생 협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사 간, 원·하청 간, 지역주민과 기업 간
다양한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51조 원의 투자와 13만 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기차 클러스터부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미래를 열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응원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경차 SUV 캐스퍼 온라인 사전예약(2021. 9. 14)

초광역협력의 성공은 광역교통망에 있습니다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 개통식 및 시승행사 | 2021. 12. 28

동남권 철도는 동남권과 다른 지역권을 연결해 지역 성장 기반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3년 뒤 중앙선의 도담~영천 구간이 완공되면 동남권 철도는 제2의 KTX 경부선이 됩니다. 수도권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더 크게 꿈을 가진다면 동남권 철도는 장차 대륙철도로 연결되는 출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열쇠는 국가균형발전에 있습니다.

초광역협력은 한층 심화된 균형발전 정책입니다. 광역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국가 성장 거점을 다극화하고,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초광역협력의 성공은 광역교통망에 있습니다. 특히 대량 수송이 가능하며 정시성, 안전성을 갖춘 철도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여 1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균형발전의 거점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속철도망의 확대는 탄소중립 목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광역철도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동남권 4개 철도 개통에 이어

부산·울산·경남에 2개의 광역철도사업,

대구·경북권에 3개 광역철도사업을 추진합니다.

동남권 지역과 함께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라권, 강원권에도

6개의 광역철도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총 12조 원의 예산을 광역철도사업에 투입해

초광역협력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 개통식 및 시승행사(2021. 12. 28)

동해선은 경제철도입니다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 착공식 | 2022. 1. 5

동해선은 경제철도입니다.

제진역에서 50여 분이면 금강산역에 도착합니다.

북한과 관광협력 재개의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장차 남과 북이 협력하게 된다면

환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가 실현될 것입니다.

부산을 기점으로 강원도와 북한의 나선을 거쳐

유라시아, 유럽 대륙까지 열차가 달릴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만주 횡단철도, 몽골 횡단철도와 연결되면

바닷길보다 훨씬 빠르고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됩니다.

동유럽의 우리 기업 생산기지로 중간재·부품을 운송하고

바다가 없는 중앙아시아의 육로 운송도 가능해집니다.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의 실현도

눈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의 땅인 유라시아 대륙을 향해

우리 청년들이 웅대했던 고구려의 기상과 함께

더 큰 꿈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찾는 시도입니다

구미형 일자리(LG BCM) 공장 착공식 | 2022. 1. 11

구미산업단지의 힘찬 부활은

일자리를 통해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노·사·민·정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으면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 투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신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 역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구미산업단지는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지역 기업들에게는 동반성장의 기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번 투자로 8,2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지역 청년들이 자라난 곳에서 꿈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지역 교육기관들도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힘을 보탤 것입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 노·사·민·정이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찾기 위한 시도입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미형 일자리가 또 한번

상생형 지역일자리 성공 사례를 쓰게 되길 바랍니다.



구미형 일자리(LG BCM) 공장 착공식(2022. 1. 11)

조선산업의 완전한 부활을 알리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 | 2022. 2. 24

군산이 회복과 도약의 봄을 맞게 되었습니다.

군산조선소는 군산의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을 이끄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으로 전북 지역과 군산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일자리가 회복되고 협력업체, 기자재업체도
다시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완전 가동되면 최대 2조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입니다.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세계 조선·해운산업은 친환경 선박으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은 전기차와 함께
탄소중립을 이끄는 미래 핵심 산업입니다.

군산조선소가 안정적으로 가동되면,
군산은 대한민국 미래산업 선도 지역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정부는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생산·기술 인력 양성, 교육생 훈련수당 확대와

현장 맞춤형 특화훈련 등을 통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전문·기능 인력을 확보하고

원활한 물류를 돕겠습니다.

4월에 만료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해
조선소가 재가동될 때까지

군산의 지역 경제와 조선산업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1등 조선 강국의 경쟁력을 다시 키워

선박 수주 물량을 흔들림 없이 확보하겠습니다.

친환경 선박의 설계, 건조, 수리, 개조까지

전방위적인 기술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 마케팅, 수출, 물류 지원을 통해

중소조선소, 기자재업체의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군산형 경제회복 프로젝트는

전국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이야말로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완전한 부활을 알리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로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선포 및 1.6만TEU급 한울호 출항식 | 2021. 6. 29

해운업 재건에 시동을 건 지 3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과 HMM이 신규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계기로

우리 해운업이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총 6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상생의 힘은 더욱 커졌습니다.

선주·화주 간 협력으로 올해 크게 늘어난

수출 물량 운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적선사 이용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난 3년간 국적선사가 발주한 126척의 배가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면서

어려움에 처했던 조선업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지난해에 선박 부족으로 운임이 급등하는 사태 속에서

수출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미리 확보한 초대형 컨테이너선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도전에 나설 것입니다.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와 함께

선박과 항만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와 디지털화를

해운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2030년까지 150만TEU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량을 확보하여

해운 매출액을 70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로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한울호 출항식(2021. 6. 29)

우리의 목표는 세계 1등 조선 강국을 굳히면서 세계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K-조선 비전 및 상생협력 선포식 | 2021. 9. 9

체력을 회복한 조선·해운산업을 더욱 강하게 만들 때입니다.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친환경화, 스마트화의
물결은 조선·해운산업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친환경화·스마트화의 강점을 살려
흔들리지 않는 세계 1등 조선 강국을 굳히면서
동시에 세계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첫째,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술력을 더욱 강하게 키우겠습니다.
둘째, 친환경·스마트 선박 수요 증가에 맞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K-조선 비전 및 상생협력 선포식(2021. 9. 9)

한국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에 독보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모잠비크 FLNG선 출항 명명식 | 2021. 11. 15

세계는 LNG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그린수소와 같은 무탄소 에너지로의

완전한 전환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탄소중립에 이르는 과정 동안

화석연료 중 탄소배출량이 가장 낮고 발전효율이 높은 LNG는

석탄과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저탄소 에너지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입니다.

세계 선박 시장에서 1위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와 세계 최대는 물론

전 세계 대형 FLNG 네 척 모두를 한국이 건조했습니다.

한국은 친환경 선박의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무탄소 선박과 스마트 선박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모잠비크의 대형 LNG 운반선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이 최적의 협력 파트너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모잠비크 FLNG선 출항 명명식(2021. 11. 15)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강한 국방

군사법원법 개정이 공포됩니다

제40회 국무회의 | 2021. 9. 14

대대적인 군 사법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이 오늘 공포됩니다.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성범죄 사건, 군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같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했습니다.
 군사법원 사건도 항소심은 모두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관할관, 심판관제도도 폐지하여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군 지휘관의 영향력이 배제되었습니다.
 군사범죄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수사 and 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하여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국군은 최첨단 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 2021. 10. 1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방개혁 2.0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최첨단 국방과학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고,
민간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40년간 유지되어온 미사일지침을 완전 폐지하여
훨씬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며 실전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군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기반으로
최첨단 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초연결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합공중방어체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무인 항공 전력도 정찰과 통신중계와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국방우주개발을 넘어 국가우주개발 시대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전 체계, 정찰위성,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기술 역시

거침없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는 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2021. 10. 1)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2021. 10. 1)

반드시 우리 군과 함께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 2021. 10. 1

우리는 이 순간에도 세계와 손잡고
영웅들이 꿈꾸던 나라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군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께서도 더 큰 신뢰와 사랑으로
능률한 우리 장병들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군과 함께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입니다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 2021. 10. 20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입니다.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물 썰 틈 없이 지키는
책임국방의 중요한 축입니다.

안보산업이면서 민수산업과 연관되어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 핵심전략산업입니다.

이제 우리 방위산업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지금 세계 방산 시장은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에서도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선도자로 나아갈 때입니다.

정부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기술진보에 발맞춰

혁신적이고 과감하게 도전할 것입니다.

2026년까지 방위력개선비 국내지출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품 국산화 지원도 지금보다 4배 이상 늘릴 것입니다.

미래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초일류 '게임 체인저' 기술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한국산 우선구매, 지역밀착 방산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방산업계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2021. 10. 20)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한미 공동 언론 발표 | 2021. 5. 21

가장 시급한 공동 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입니다.

나와 바이든 대통령님은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나와 바이든 대통령님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부합한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첫째, 당면과제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을 것입니다.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을 비롯한

첨단 제조업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 | 2021. 8. 15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에게 분단은 성장과 번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가로막는 강고한 장벽입니다.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는 정보공유와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 코로나19 대응 인력 공동 훈련 등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협이
결코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한 지금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동아시아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북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고,
사실상의 섬나라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연결될 때
누릴 수 있는 이익은 막대합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를 꿈꾼다면
우리의 상상력은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를 넘나들 것입니다.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면
강고한 장벽은 마침내 허물어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새로운 희망과 번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의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합니다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 2021. 9. 21

한국은 한반도에서부터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비핵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해 왔고,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싱가포르선언이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입니다.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합니다.
대화과 협력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에서 증명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두 해 전 이 자리에서
전쟁불용과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원칙으로 천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진시켰던 원동력은 대화와 협력의 정신이었습니다

제16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화상) | 2021. 10. 27

한국은 한반도 평화가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시작이라는 믿음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진시켰던 원동력은
대화와 협력의 정신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와 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국가를 넘어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삶의 공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인류의 삶에 큰 위기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서로를 포용하며 협력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가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고
전 세계에 제시할 수 있는
연대와 협력의 나침반이 되길 기대합니다.



제16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화상)(2021. 10. 27)

우리는 보호무역과 새로운 무역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 | 2021. 12. 6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무역 앞에 놓인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동 제한과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고,

EU는 탄소국경조정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호무역과 새로운 무역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등

품목별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물류 정체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외부의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무역의 저변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2021. 12. 6)

금융, 마케팅,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게 기회가 되고 있는 디지털 무역 기반도

강화할 것입니다. 수출시장도 더욱 넓혀 가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환경 규범 강화에 대응해

기업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세계는 탄소중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인 기업과 상품만이 새로운 무역질서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저탄소기술 개발을 위해 R&D와 세계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이며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 2022. 2. 14

최근 급변하는 국제 경제질서의 핵심 화두는 경제안보입니다.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무역 갈등과 기술 패권 경쟁이 확대되고,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각국 정부의 수출규제가 증가하고

기술과 자원이 무기화되는 등

상호 호혜적인 국제분업체계와

평화로운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고,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이며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 무역질서 복원을 위해

국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제 정치·경제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경제주권과 국익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제조업 비중과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구조에서
글로벌 공급망 관리는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최근 공급망 위험이 확대되며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범정부적 신속한 대응이 긴요해졌습니다.

세계가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수한 제조업 생산기반, 탁월한 혁신역량,

위기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살려 나간다면

공급망과 관련한 우리의 강점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습니다.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을 모아

급변하는 대외 경제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제103주년 3·1절 기념식 | 2022. 3. 1

우리는 지금,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한국판 뉴딜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이 되었습니다.

디지털과 그린 뉴딜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휴먼 뉴딜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역균형 뉴딜로 국가 균형발전시대를 열며
혁신적 포용사회로 확실한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안보인 시대,

글로벌 공급망의 어려움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우리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만 다자주의에 입각한

연대와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습니다.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으로 초대받을 만큼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제103주년 3·1절 기념식(2022. 3. 1)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신남방정책,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신북방정책,

중남미와 중동까지 확장한 외교로

경제협력과 외교·안보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세계 최대의 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지난달 발효되면서,

우리는 세계 GDP 85%에 달하는

FTA 네트워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제영역이 그만큼 넓어진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랍니다.
나는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 2021. 9. 21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공동체로서,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종전선언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입니다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영상 개회사 | 2021. 12. 17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길은 아직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곧 인류가 그토록 염원하는
평화의 길이 될 것입니다.
불확실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해내야만 합니다.

종전선언은 항구적 평화의 입구이며,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입니다.
종전선언은 전쟁의 기억과 이산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해와 협력, 관용과 포용의 가치를 공유하며,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종전선언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평화가 경제가 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시대로의 대전환을 이끌겠습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입니다

2022년 신년사 | 2022. 1. 3

올해는 남북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로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의 기본 정신을 천명했던
7·4남북공동선언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입니다.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 임기 동안 쉽지 않은 길을 헤쳐 왔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 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 착공식 | 2022. 1. 5

남북이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한반도에서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이 열릴 때

남북 간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발전의 새로운 돌파구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남측 구간 구축을 통해
경제협력을 향한 의지를 다지고 먼저 준비할 것입니다.

대륙철도 연결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철도 연결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입한 국제철도협력기구의 여객운송 협정과
화물운송 협정 가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북한도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남북이 함께 노력하고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일 때

어느 날 문득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 착공식(2022. 1. 5)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생협력을 이끄는 가교 국가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 | 2021. 8. 15

우리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국경을 넘어 상생과 협력을 실천해 왔습니다.
개방과 통상국가의 길을 걸으며 7대 수출대국으로 성장했고,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도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스라엘과 FTA를 타결하며
협력의 폭을 넓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생협력을 이끄는
가교 국가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을 의미합니다.
개방과 협력으로 키운 우리 역량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재건과 평화질서에 적극 이바지할 것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우리의 성장 경험과
한류 문화, K-방역을 통해 쌓은 소프트파워를 토대로
새로운 시대의 가치와 질서 형성에 앞장설 것입니다.

지구공동체 시대는 함께 지혜를 모으고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 2021. 9. 21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존재입니다.
인류는 공동체를 통한 집단지성과 상호부조에 기대어
수많은 감염병을 이겨내며 공존해 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역시 인류애와 연대의식으로 극복해낼 것이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경을 초월해 유전체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백신 개발에 성공했으며,
치료제 개발도 빠른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이기는 것은 경계를 허무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의 영역이 마을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지구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지구공동체 시대의 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공동체 시대는 서로를 포용하며 협력하는 시대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제발전에 앞선 나라,

힘에서 우위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이끌었지만
이제 모든 나라가 최선의 목표와 방법으로 보조를 맞추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협력과 행동의 중심으로 유엔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행동으로 이끄는 유엔이 되어야 합니다.
유엔이 이끌어갈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비롯한 보건 협력 강화가 절실합니다

제24차 아세안+3 정상회의(화상) | 2021. 10. 27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
아세안+3 정상회의의 출범정신을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우선 코로나19 극복을 비롯한 보건 협력 강화가 절실합니다.
한국은 코백스에 2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고,
이번 달 아세안 국가부터 백신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으로서
공평하고 신속한 백신의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정상성명을
지지합니다.

코로나19로 우울증을 겪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역내 공조체계 구축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의 7대 핵심 분야 협력을
아세안 포괄적 경제회복 프레임워크(ACRF)와



제24차 아세안+3 정상회의(화상)(2021. 10. 27)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디지털, 보건 분야 중심으로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해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하겠습니다.

연대와 협력만이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16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화상) | 2021. 10. 27

세계는 지금 국경을 초월한 협력만이
코로나19,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회복을 위해 사회 안정과 경제 활력을
빠르게 되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성명과
관광회복을 통한 경제성장 성명을 채택하고,
보건과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은 오늘 채택되는 지속가능한 회복 성명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기후위기야말로 연대와 협력 없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탄소 경제 전환을 향한 회원국들의 의지가
더욱 결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계 경제의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도 정책 공조가 절실합니다

G20 정상회의 제1세션 | 2021. 10. 30

세계 경제의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도
정책 공조가 절실합니다.

첫째,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저소득국 채무부담 완화 조치를 지지하며,
IMF 특별인출권(SDR)을 활용한
저소득국 유동성 지원에도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10억 SDR을 공여 중이고,
4.5억 SDR을 추가로 공여할 예정입니다.

둘째, 글로벌 거시정책의 공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억제하여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유무역 복원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WTO 개혁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규칙에 기반한
글로벌 교역체제가 지속되고 더욱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G20 공식환영식(2021. 10. 30)

넷째,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응하여
공동의 규범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새로운 국제조세 규범이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토대로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화상) | 2021. 10. 26

아세안은 지난 반세기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습니다.

아세안과 한국은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함께 넘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과 관계를 매우 중시합니다.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로서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2017년부터 이어온 신남방정책과
지난해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토대로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 아세안대응기금에 500만 달러를
추가로 공여하여 아세안의 백신 보급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아세안의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신북방 14개 나라와 맞춤형 협력사업을 펼쳤습니다

제3차 북방포럼 개최식 영상 축사 | 2021. 11. 18

우리 정부는 2017년 출범과 함께 신북방정책을 시작했습니다.
북방 유라시아의 일원이라는 연대감으로
북방포럼을 출범시켰고,
지난해에는 사람·평화·번영의 3대 원칙과
8대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신북방 14개 나라와
맞춤형 협력사업을 펼쳤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는 연대하고 협력하며 상생했습니다.
한국은 의료진을 파견하여 진단검사를 협력하고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K-방역의 경험을 공유하며
국경을 넘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헤쳐 왔습니다.
정부 간 보건·의료 협의체도 활발하게 운영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북방국가들에 대한 보건·의료 ODA(공적개발원조)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하고,
북방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을 돕는
그린 뉴딜 ODA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에도 함께하겠습니다.
금융 플랫폼의 확대로 북방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고,
보건·의료, 디지털, 환경, 스마트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플랫폼을 강화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글집

제 5 권

위기를 기회로
선도국가 대한민국

발행 대통령비서실
제작 문화체육관광부
편집디자인 채홍디자인
인쇄·제본 (주)행복드림여성장애인기업
발행일 2022년 4월

